

남자는 '1년에 388번' 여친 말 듣고도 '모른 척'한다

남자친구를 향한 칭찬 대신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붓는 여성들이 있다. 남자친구와 만나 밥 잘 먹고, 영화 잘 보고, 커피까지 한 잔 마시고 들어왔는데도 우린 맨날 이런 단조로운 데이트만 하나고 불평을 하거나, 어제는 잘 만나고 들어왔지만 오늘은 왜 내가 밥은 먹었는지, 뭐하고 있었는지, 뭐 할 건지를 안 물어보냐며 서운하다고 말하는 여성들도 있다. 남자들의 입장에서 의무와 책임만 가득하며, 자신은 늘 고치고 노력하고 개조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연애.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 남자는 필연적으로 이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Hearing Care' 연구진은 영국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실험자들이 배우자 혹은 연인의 말을 어떻게 듣는지 면밀히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실험자의 4분의 3가량이 배우자의 말을 '선택적'으로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방어' 차원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특히 더 심했다. 여성이 1년에 339번 배우자의 말을 무시하는데 비해 남성은 388번을 기록했다. 1년 365일 동안 남성은 적어도 '하루에 한번 이상' 여자친구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뜻이다.

연구를 이끈 키란 사임비(Kiran Saimbi)는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이를 흘려들으려 한다."며 "일부 자극만을 인식하며 다른 자극을 무시하는 선택적 청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심한 선택적 청각은 청력이 손실됐다는 징후이기도 하다."며 "만약 너무 심하다면 배우자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길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연애 말고는 자신의 삶에 다른 건 아무 것도 없는 듯 연애만 바라보고 있거나 둘이 같이 하지 않으면 혼자선 아무 것도 못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건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연인의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신경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즉, 여자는 수다와 잔소리로 남자를 질리게 하고, 남자는 무관심으로 여자를 오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친의 잔소리와 관련해 '남자들은 연인의 잔소리를 사실 듣고도 모른 척 한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관심을 끈다.

영국의 청력 및 시력 보조 기구 회사 '스크리븐(Scrivens)

사진=shutterstock.com

시니어 헬스케어 전문 **MART** 옆
HOWARD DRUGS
 • 깨끗한 시설 • 저렴한 가격 • 친절함 서비스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상담 전문
 세리토스, 실비치, 싸이프러스, 롱비치, 하와이언 가든, 다우니

30년 병원 임상경험
 *노약사에게 전화주세요

약사 노혜경
 Pharm.D.
 Board Certified
 Pharmacotherapy
 Specialist

하워드 약국(노약국)
562-866-6011
 20141 Pioneer Blvd. Lakewood, CA 92715

This pharmacy is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under a license from Health Mart Systems, Inc.

JOY 핸디맨 & 플러밍

물
새
요
:

연락주세요.

제이킴
714.249.5469

24
시간

커뮤니티 양로병원
 Community Extended Care of Montclair

한결같은 사랑과 기도로 내 부모님처럼 섬기는 양로병원

- 24시간 병간호**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 링거투여, 호스피스케어
 - 외상치료, 호흡기치료, 기관절개치료
- 각종 여가활동**
 - 각종 교육 프로그램
 - 아트와 게임
 - 종교활동
 - 운동 프로그램
- 다양한 제공**
 - 병원 예약, 차량제공
 - 영양상담과 다양한 메뉴 제공
 - 메디케어, 메디칼 Private/HMO/PPO

9620 Fremont Ave., Montclair, CA 91763
(909) 621-4751
 한국어 상담: Faith Lim (562) 714-7792
 www.communityech.com

아늑하고 편안함, 최첨단 의료시설과 환경 한국인에게 친절한 상담을 받으세요.

